

# 연령이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 성적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병원<sup>1</sup>, 분당서울대학교병원<sup>2</sup>

\*장은선 · 이동호 · 김나영 · 박영수 · 정현채 · 송인성

**목적 :** 궤양성 대장염은 15~25세와 55~65세 사이에 두 번의 호발을 보이며, 2차 호발 연령대에 발병하는 경우 임상 양상이 더 경미한 경향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하지만 연령군에 따라 치료성적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관해 유도 치료 후 재발한 환자군의 특성을 재발하지 않은 환자군과 비교함으로써 연령군이 치료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본 연구는 2003년 5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된 환자 중 18세 이상, 85세 이하이며 관해 유도 치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관찰을 하였던 예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지 열람을 통해 임상 증상 및 검사 소견, 관해 유도 약물의 종류 및 용량과 치료 기간 등에 대해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일차 결과 변수(primary endpoint)는 관해 실패 또는 재발로 정의하였고, 이에 따라 환자를 관해 유지군과 재발군으로 분류하고 일차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해 단변수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다변수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 대상 기간에 진단된 환자는 총 73명이었고, 이 중 선별기준을 만족한 4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령 중앙값은 41.16세(범위 18.6~81.6세)였으며 연령군을 45세 이상과 미만군으로 분류하였다. 중앙값 241일(분위간 범위 108~428일)의 추적관찰 기간에 총 23명(46.5%)이 관해 유도에 실패하거나 재발하였다. 관해유지군의 중앙연령(53.3세, 범위 27.4~81.6세)에 비해 재발군의 중앙연령(37.63세, 범위 18.6~80.9세)이 낮았고( $p=0.046$ ), 45세 이상 연령군은 관해유지군에서 65.0%이었으며 재발군에서는 30.4%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23$ ). 재발군은 내시경 검사에서 직장에 국한된 경우가 유의하게 적었으며(18.2% vs. 52.6%;  $p=0.020$ ) 전장침범은 더 많았다(40.9% vs. 10.5%;  $p=0.029$ ). 관해유도치료 기간은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재발군에서 관해시까지 사용한 총 스테로이드 용량이 더 적었다( $p=0.016$ ). 또한 재발군에서 남자가 더 많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고(73.9% vs. 45.0%;  $p=0.053$ ), 증상 및 검사실 소견은 차이가 없었다. 다변수 로지스틱 회귀모형(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에서 성별, 궤양성 직장염, 관해유도시 스테로이드 총량을 보정하였을 때 45세 이상의 연령군만이 재발에 유의한 보호 인자로 나타났다(OR, 0.126; 95% CI, 0.015~0.995;  $p=0.049$ ). **결론 :** 45세 미만에 비해 45세 이상인 환자군은 직장병변, 관해유도시 스테로이드 용량, 성별을 보정하였을 때 궤양성 대장염의 재발 위험이 87.4% 낮았다.

# 장결핵환자에서 장외결핵의 빈도 및 대장내시경조직검사 횟수에 따른 진단율의 차이

아주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우학 · 조정수 · 권혁춘 · 황재철 · 신성재 · 이기명 · 이광재 · 김진홍

**배경 및 목적 :** 장결핵은 특이증상이 없고 진단하기 어려워 진단을 위해서는 대장내시경 소견과 생검, 미생물학적 검사, 타 장기에 대한 검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외결핵의 빈도 및 대장내시경생검 횟수에 따른 진단율의 변화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방법 :** 2003.01월부터 2007.07월까지 아주대학교병원 내과에 내원하여 대장내시경상 장결핵이 의심된 4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자료를 조사하였다. 장결핵은 대장내시경 조직검사상 건락성육아종이나 항산균이 발견된 경우, 장외결핵이 진단되고 대장내시경상 의심되어 시험적항균제 치료 후 호전된 경우, 장외결핵은 진단되지 않았으나 대장내시경상 의심되어 시험적항균제 치료 후 호전된 경우중 한가지로 정의하였다. 총 44명의 환자들은 평균연령은 41세(16~83세) 남녀비는 19:25였으며 성별에 따른 연령의 차이는 없었다. **결과 :** 대장내시경조직 검사에서만 건락성육아종이나 항산균이 발견된 경우는 3명(6.8%), 대장내시경조직 검사와 장외결핵에서 조직검사상 건락성육아종이나 항산균이 발견된 경우는 4명(9.1%)이었다. 장외결핵이 진단되고 항결핵요법에 반응이 있는 경우는 22명(50.0%), 이 중 폐결핵은 객담 항산균검사 15명(34.1%), 객담 결핵균배양검사 19명(43.2%)이었다. 장외결핵은 없고 임상 또는 대장내시경 소견에서 장결핵이 의심되어 치료 후 호전된 경우는 15명(34.1%)이었다. 대장내시경 조직검사상 건락성육아종이나 항산균이 발견된 7명과 나머지 37명을 비교한 결과 채취한 평균조직갯수는  $6.7 \pm 2.49$  vs  $6.8 \pm 3.0$ ( $p=0.689$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채취한 조직검사갯수를 채취한 분절로 나누었으며 비교한 값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활동성폐결핵유무에 따른 건락성육아종이나 항산균이 발견된 확률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활동성폐결핵과 조직검사갯수에 따른 건락성육아종이나 항산균이 발견된 확률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 장결핵이 진단된 환자에서 장외결핵 증상에 대한 병리검사, 항산균 염색 및 결핵균 배양 등이 진단에 도움이 되었으며, 대장내시경생검시 채취한 조직수나 폐결핵여부에 따른 조직검사양성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